

# 소·부·장 독립 이끌 강소기업 55곳 韓 산업의 허리 받친다



## 강소기업 100 출사표

1차 55곳 업선... 빈자리 추가 공모 전기·전자, 기초 소재 등 두루 포함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는 지난해 1차로 선정된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55곳이 튼튼하게 받쳐나갈 전망이다.

이들 강소기업은 전기·전자(16개), 반도체(10개), 기계금속(8개), 디스플레이(8개), 자동차(7개), 기초화학(6개) 등 모든 소·부·장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들 소부장 기업이 완벽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 1곳당 5년간 최대 182억원 등 전주기에 걸쳐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강소기업 100' 가운데 55곳을 제외한 나머지 빈자리 45개는 올해 추가 공모를 통해 채워나갈 계획이다.

◆1차 '소·부·장 강소기업 100' 면면은? 중복 청주 오창에 위치한 아이티캠, 2005년 설립한 이 회사는 감광재료, 전자재료, 원료의약품 등 정밀화학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유기합성 전문 강소기업이다. 2018년 매출은 약 220억원 정도다.

아이티캠의 주요 제품은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 주로 수입하는 폴리이미드, 폴리이미드는 열에 견디는 성질이 뛰어나 고온의 연료전지, 디스플레이, 군사 용도의 유기 재료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소재다.

아이티캠은 투명폴리이미드 필름에 사용되는 F-아이템과 T-아이템 같은 핵심모노머 2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특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모노머보다 순도와 투명성을 개선해 고효율 투명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에 기여해왔다. 게다가 소재부터 필름까지 전공정

을 국산화하는데도 성공했다. 아이티캠은 현재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해 국내·외 대기업과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 파일럿 테스트 및 양산 테스트를 통과해 일부 고객사로부터 최종 제품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 대기업에도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울산 울주에 있는 부국산업은 미래차로 꼽히는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개발·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성품 중 가장 핵심은 ▲연료전지스택 ▲전장 부품 ▲수소 저장 및 이송 부품이다. 이 가운데 부국산업은 수소이송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 무겁고 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쉽지 않은 기존 스테인리스 소재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수소이송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부품 중량을 줄이고, 연비 개선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낮춰 수소차의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기술개발 → 사업화 → 공정혁신 최대 182억 지원 '5년 프로젝트'

부국산업의 수소이송 부품은 수소연료 전지차를 본격 생산하는 2021년께 양산돼 2018년 기준 1077억원이던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설립 후 초정밀 가공기술과 에어베어링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어 베어링 시편들 양산에 성공한 알피에스. 에어베어링 시편들은 반도체, PCB, 터치패널, 스마트폰의 메탈케이스 가공 등 첨단산업분야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약 70%에 이를 정도로 국산의 접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알피에스가 개발한 스마트폰 정

밀 부품 가공용 10만rpm급 에어 베어링 시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초의 강화유리 전용 가공기용 에어 베어링 시편들도 개발해 현재 스마트폰 및 디스플레이 장치의 커버글라스 등 엠티그라 인더용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품질도 인정받고 있다.

### 상시 모니터링, 사후관리 철저 수요 대기업과 공동 성장 지원

◆어떤 지원 이뤄지나 정부는 이들 '소·부·장 강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 1곳당 총 30개 사업에 걸쳐 5년간 최대 182억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개발단계, 사업화단계, 공정혁신단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R&D 사업 우선 지원 최대 20억원 ▲IP분석, 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수출바우처·수출국 규격인증 획득 최대 1억원 ▲스마트 공장 고도화 최대 1억5000만원 ▲로봇 생산 공정 도입 최대 3억원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선정된 강소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혁신을 하고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R&D,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아울러 수요 대기업과 분업적 상생협력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공동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요건 결격, 부도나 폐업 등으로 프로젝트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2019년 선정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55개사 현황

분야	기업명	주요 기술/제품
기계금속	다윈프릭션	항공기 휠, 브레이크
	대성하이텍	스마트 팩토리 IoT 플랫폼을 적용한 임플란트 가공 CNC복합 자동선반 개발
	삼영기계	피스톤, 리스톤 링, 실린더 헤드
	알피에스	에어베어링 시편들
	일신오토클레이브	고체전지 소재·부품 제작을 위한 장비
	파나시아	수소 추출기 핵심기술 개발
기초화학	플로트론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 온압보정형 Vortex 유량계
	한국도기계	선박 BVRC용 전기유압식 액추에이터 국산화 개발
	아이티캠	투명폴리이미드 필름용 모노머
	에나젠	펩타이드 바이오소재 및 혁신 신약기술 개발
디스플레이	에버텍	고기능성 대전방지 코팅제
	에프티씨코리아	산업용 촉매제, 첨가제, 타이어코드 접착수지 제조기술
	엔켄	리튬이차전지용 전해액
	한국바이오젠	전자재료용 실리콘 O-레진 6층 핵심소재 및 다운스트림 개발
반도체	베이스	OLED 실링용 Glass Frit & Paste 제조기술
	선재하이테크	산업용 정전기제거 장비
	에스엔에스텍	고해상도 평판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고품위 블랭크마크 개발
	에스엠에스	차세대 Display용 융복합 고기능성 코팅제 개발 및 사업화
	엔텍	초소형 마이크로 LED 칩 미세 접합공정 기술 등
	이코니	Ultra Thin Glass개발
	코윈디에스티	LCD/OLED 레이저 리미어 기술
	풍원정밀	OLED 증착용 Fine Metal Mask(FMM) 사업화
자동차	넥스틴	초고속 고감도 압조영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개발
	디엔에프	반도체용 ALD 전구체 개발
	마이크로프랜드	5G Application 向 3D MEMS Test Solution
	에이엠티	차세대(DDR5) Memory Module 고정밀 Tri Temp Test 검사 장비개발
	에이티아이	반도체 광학 검사 및 계속 장비
	엘에이티플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무화염 촉매방식 가스스크러버
	영창케미칼	KrF포토레지스트
전기전자	웨이비스	GaN RF 반도체 칩 제조 기술
	윌테크놀로지	DDIC 다중 COF 패키지 등
	파크시스템스	반도체공정과 OLED 공정용 In-line Hybrid AFM 기반 Inspection tool 개발
	게임금속	2세대 DCT 부품 제조
기타	대우전기공업	자동차 주행안전제어용 압력센서
	부국산업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개발
	서우산업	PET Wheel Guard/ PET Floor Under Cover
	성림첨단산업	히트류 영구자석 등 소재
	센시텍	초음파 센서 모듈
	아모그린텍	나노기술 기반 첨단 소재 및 부품 개발
	가기비스	AOI (초고해상도 반도체 패키징용 RDL회로패턴의 광학검사 기술) 등
	대우전자재료	리튬이차전지용 실리콘복합산화물 음극활물질
	동우전기	DMS, 초고압 VT
	비나텍	슈퍼커패시터 제조용 연료전지 지지체, 촉매, MEA 제조기술
	비츠로셀	IoT, Smart-Grid, Smart-Weapon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통신장비 전원솔루션 개발
	세미시스코	인쇄전자 방식을 적용한 유연기판용 Cu 기반 투명전극 소재 및 공정 국산화
	썬크	산업용, 의료용 X-ray Tube 인공지능 기반 AXI검사장비
알에스오토메이션	네트워크 기반 다기능 로봇모션 제어 솔루션 개발	
엘케이엠엔텍	반도체 금벌프용 도금액소재	
오이솔루션	통신용 반도체 레이저 부품 사업화	
와이엔텍	친환경 전기, 수소차용 직류 고전압 릴레이	
이노피아테크	초소형 무선 방송수신장비	
인텔리온테크놀로지스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용 트랜시버 개발	
캠을틱스	모바일 5G용 팜잡기 광 트랜시버	
피엔이솔루션	2차전지 화성 라인 용·복합 시스템 개발	
한라아이엠에스	가스연료추진선박의 탱크 및 밸브 통합검사제어 핵심장치 및 플랫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 세계로 뻗는 소부장... '메이드 인 코리아' 총력

### 반도체 등 6대분야 100개 품목 맞춤형 대책 이르면 이달 발표 신보·기보 1兆 보증프로그램도

수출 규제, 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의 공습에 논란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은 완벽한 '경제 안보'와 '기술 독립'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1등 제품'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여서 관련 분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맨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소·부·장의 경우 일본, 독일 등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 이어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꺼내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또 12월 중순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의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빠르면 이달 중 내용을 계획한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등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조1000억원 등 매년 2조원 이상의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통해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7500억원), 기술보증기금(2500억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소부장 중소

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 만기연장, 신규 보증비용 상향 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을 개발한 공급기업과 이들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기업간 협력사업도 올해 20개 이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입지, 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면서다.

R&D 법인세 공제율의 경우 대·중견 기업은 기존 20%에서 최대 10% 추가, 중소기업은 30%에서 최대 10% 추가해 혜택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각각 적용한다. 소부장 기업이 외국회사를 인수·합병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공동인수시 기존엔 각 기업 별로 적격요건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해 요건을 판단, 공동인수시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엔 주식취득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사업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것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